



한중일교류사

강의개요
근대란 무엇인가
기억이란 무엇인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근대

담당교수 : 손 정권

민족의 기억/상상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 맥아더 동상을 둘러싼 드잡이(2005.9.11)-보수와 진보의 반목
 - 모리스 알브박스-기념비;기억의 형상/기억의 표식
- 기억이 망각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기억을 잡아 줄 지지물이 필요
- *기억이란 학문적으로 뜨거운 주제이다; 역사 뿐 아니라 사회학, 문학, 종교학도 동참하고 있으며, 역사 대신에 기억이란 말로 대신한다.

역사가 아니고 기억이 중시되는 이유

- 첫째, 현재를 정립한 역사적 시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주관적이었다
- 둘째, 역사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파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의 문제이다
- ;삶으로서의 과거는 역사라기보다 기억의 문제이다.
- 셋째, 정체성의 혼란---민족국가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다.
- *필자의 경우는 이상의 세가지 이외에 주제가 친근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
- 그러므로 「기억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성찰을 시도」하고자 함.
- →독일의 문화학자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을 이론화하고자 함.

기억이란?-교회의 성립과정을 통해서

- 모리스 알브박스의 이론; 「**기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이다**」
- ;기억의 사회성을 입증하는 데서도, 진정 홀로 있는 유일한 인간 존재인 꿈꾸는 자에게는 수미일관한 기억이 없다.
- ***교회의 기억**
- 1)팔레스티나의 성지가 정해지는 과정
- ;예수의 처형이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과 교훈, 금언과 우화에 유의
- →예수의 탄생과 성장, 활동과 사망이라는 전기적 사실에는 무관심
- ;메시아적인 종말론적 기대(세계관)-예수는 재림한다.
- →즉각적인 기대가 무너지는 것에 의해 인간은 장기적인 전망을 하게 되고,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의)대상을 전기화(傳記化)할 필요성이 생기게 됨
- →종교적 관념의 역사화 : 창건자의 전기

기억이란?-교회의 성립과정을 통해서

- 2)종말론적 세계관의 붕괴로 기억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까지 파편적으로 기억하던 내용을 취사선택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됨(해당 공동체의 신념에 따른 기억의 취사선택).
- 3)기원후 68년에 예수의 친척들이 지도하는 또 다른 공동체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요르단강 건너편에 자리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도바울을 배교자로, 예수를 신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할 선지자로 간주하는 또 다른 기억의 구성을 볼 수 있음.

교회의 기억과정을 통해

- <1>기억은 안정되게 고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현실체험으로부터 분리된 교리는 시간이 가면서 결국 체제로 된다.
- <3>공식체제가 새로운 삶의 현실에 부딪쳐 생명력을 상실하였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와주던 존재가 신비주의자였다는 사실에서...
- ;새로운 기억의 원동력은 텍스트가 아니라, 현실의 열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즉, 실상은 당대의 감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기억을 통해

- *교조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의 차이는...전통과 생생한 기억 중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두느냐?!
- 교회의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이 보충하고 완비하는 성격을 띤다.
- →기억은 재구성된다.

기억의 특징

- 1) 기억은 집단적이다....즉 사회적이다.
- →기억이란 집단, 즉 사회가 하는 것이다.;**사회는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만든다.**
- 2) 기억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데는 각종의 장치가 필요하다.
- →상징, 텍스트, 그림, 의례, 기념비, 장소....문화적 표현물 (표상)이 필요하다
- *예를 들면, 기독교의 영성체부터 성지순례 등의 행위가 기억의 제도적 장치에 해당함.
- 3) 기억이 고안된 것이라면, 기억에 의도가 개입된 것은 자명하다....기억은 의지적이다.
- →더욱 명료한 서사구조로 표현 된다

기억의 특징

- 4) 기억은 선택적이다 : 특정집단의 의도에 의해 계산적으로 성립
- → 망각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공식기억은 수많은 대항기억을 제압하게 되는 것이다.
- ; 집단적 기억이 선택적일 수 있는 것은 망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 5) 기억은 재구성된다 : 지속적으로 재해석된다.
- → 변화하는 현실과 삶에 맞추어 재해석
- 6) 기억은 권력적이다 : 집단의 권력이 기억으로 발휘되고 유지되기도 한다.
- 7) 기억은 변화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변경 될 때만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 *사회를 중시하던 알브박스에게 기억이라는 문화현상은 사회현상의 종속변수!!

기억의 유형

- 1)모방적 기억 : 학습기억(인간의 일상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억)
- 2)사물의 기억 : 인간이 자기자신을 투여한 시간적 차원을 갖는 기억
- 3)소통적 기억 : 한 시대가 당대의 과거에 대하여 보유하는 기억
- 4)문화적 기억 : 1)~3)의 기억은 모두 「문화적 기억」으로 전환 될 수 있으며, 이를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미」이다.

기억의 유형

- 즉, 모든 기억에 「의미」가 부여될 때, 그 기억은 「문화적 기억」으로 승화한다.
- → 다시 말해, 문화적 기억이란 의미를 전승해 주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 : 의미란 무형의 것이고 관념이기에, 실체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실체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기억형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형상은 해당집단의 자화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집단은 기억에 의거하여 기억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사물이 상징으로 변환되어, 「사물의 기억」의 지평을 넘어 설 때, 그 사물에 시간의 차원과 정체성의 차원이 각인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적 기억」으로 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 기억은 특정집단을 공동체로 형성시켜주는 메커니즘이고, 그 기억이 전승해 주는 [의미] 역시 집단적 정체성을 담지(擔持-담당의 의미)한다.

문화와 정체성

- 독일 문화학자들에 의하면...
- 문화란 공동의 경험 및 기대 공간, 즉 행위공간을 형성해주는 「상징적인 의미 세계」
- →문화를 구성하는 규범, 금기, 제도, 규칙, 해석 등은 인간 내외의 자연에 대한 거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성찰의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세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 「정체성」이란, 인간이 이러한 공간 속에서 획득하게 되는 타인 및 자신에 대한 의식인 것이다.
- :개인적 정체성

지혜와 신화

- 문화적 기억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 정체성이며, 집단정체성은 인위적으로 의식되는데,
- 이는 성찰적으로 되어진 사회적 귀속성이며, 개인이 문화구성체에 참여하여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되는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집단정체성이 성립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인식되는 「공동의 의미」란, 하나는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화」이다.

정체성이란?

-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문화적 의미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문화적 의미는 문화적 기억에 의하여 유통되므로, 문화적 기억이란 문화적 의미를 전승해주는 기억, 그렇게 집단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사회적 기억이 되게 되는 것이다.

소통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

- **소통적 기억은...특정 집단의 당대에 공유되는 자기 시대의 기억**
- **문화적 기억은...그 이전 시기로부터 전승되는 기억 : 텍스트가 필요-텍스트란 사후적으로 성립된 전언**
- **→문화적 기억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성이 도입 : 재결합된 시간**